

# 순천이수초, 학부모들 '영상 메시지 마음전달'로 아이들 울려

### 학부모회 주관 어린이날 이벤트 '너희는 소중한 존재란다' 사전에 준비한 메시지, 영상으로 편집해 모니터 통해 전달

순천이수초등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부모들이 사전에 제작한 '자녀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 영상'을 4일 각 학급의 모니터를 통해 전달하였다.

"어린이날 축하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아이길~" "엄마도 모르는 거 많지만 서로 알아가면 서 지금처럼 맞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앞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자"

"바르고 옳은 생각을 하고 억울한 일에 할말은 할 수 있는 당당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주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무를한 이름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이 전

하는 특별한 '마음'이 영상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순천이수초등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지난 4일 각 학급 모니터를 통해 부모님의 메시지를 전달 받은 학생(아이)들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메시지를 학부모회 임원 및 학부모회 담당 김연진 교사가 영상으로 편집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불규칙한 학교생활과 제한된 활동공간 안에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격려의 시간으로 기획했고,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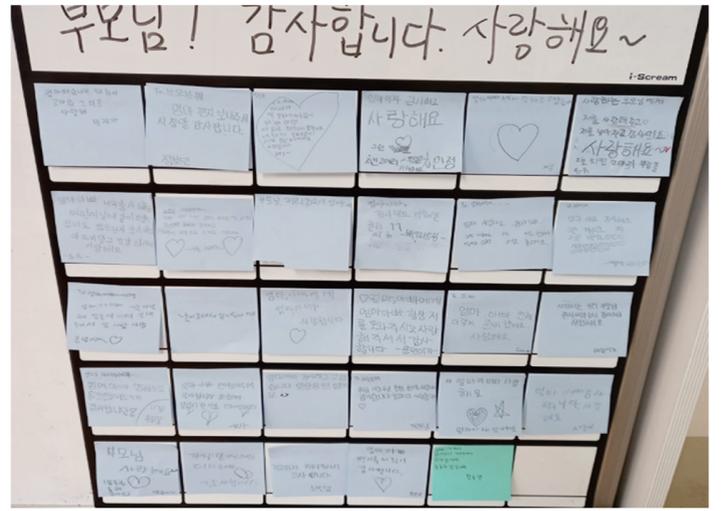
되었다.

순천이수초등학교 교장 김래규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항상 꾸밈없이 밝고 명랑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영상 메시지를 본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언제 이렇게 준비 하셨어요?," "항상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감사의 글을 전달하였다.

행사를 준비한 학부모회 김경선 회장은 평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감과 관심은 아동과 청소년기를 거쳐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학부모회와 학교가 함께 고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영광공공도서관, '그림책 읽는 아이' 운영

### 관내 10개 단·병설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영광공공도서관(관장 장혜란)은 관내 단·병설유치원으로 찾아가는 '그림책 읽는 아이'를 5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7세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이 선정한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목록의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있고 친근하게 그림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광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영광 지역 학부모를 강사로 채용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단·병설유치원(영광초, 영광중앙초, 흥농유, 법성포초, 군남초, 연산초, 군서초,

불갑초, 대마초, 묘량중앙초)이 대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설유치원의 선생님은 "그림책을 직접 갖고 와서 읽어주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며 "또한, 읽어준 책을 유치원에 기증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다시 읽으면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유치원 현장의 선생님들과 유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책이 아이들 상상력의 근원으로 느끼고, 도서관에 더 자주 방문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기자

## 담양교육청, 담양군의회에서 담양교육 2021설명회 가져

### 주요 운영 현황 및 교육공동체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7일 담양군 의회를 방문해 '담양교육 2021 주요 운영 현황 및 교육공동체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담양교육의 주요 내용인 인문교육, 창의·융복합 교육,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찾고 머무는 지속 가능한 담양교육을 위해 교육자원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학생 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대안중학교 유치,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담양미래교육협력센터 구축, 도

시학생의 전남 유학을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유학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교육공동체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김중오 담양군의회 의장은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는 담양교육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이었고 지속가능한 담양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좀 더 고민하고 협력 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의회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주 교육장은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삶과 지역에 기



반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질 높은 배움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양 덕례초, 체육교육활동으로 빙상체험 다녀와



광양덕례초등학교(교장 전문주) 4학년은 체육교육활동으로 빙상체험을 다녀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빙상체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빙상

체험에 다녀왔다. 아이들의 신난 모습이 제법 행복해 보인다.

광양덕례초등학교는 지난 7일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몸을 기르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빙상체험을 실시하였다. 4학년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학교를 출발하여 예구마을을 지나 부영국제빙상장으로 향하였다.

4학년 강해경 학생은 "거리두기를 하며 교실에서 공부하다 스케이트를 타러 나오니 매우 즐겁다."며 "오고 가는 길이 힘들지만 친구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니 스트레스가 풀리

고 매일 스케이트를 타러 오고 싶다.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전문주 교장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며 "덕례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빙상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빙상 체험도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